



프로폴리스의 위력

-3월호이어서-

두리원 대표 김해룡
한국자연 건강연구회 이사

12. 자연의학과 민간요법

5. 단방요법과 죽염에 대한 견해

1) 화상을 입었을 때

꿀 10, 프로폴리스 원액 1의 비율로 섞는다. 이 때에 사용하는 꿀이 아카시아 꿀이면 더욱 좋다. 혼합된 것을 화상에 바로 바르는 것은 상처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즈에 발라서 상처에 덮어둔다. 이것을 매일 갈아 얹어주면, 상처는 화농되지 않고, 흉터도 없이 잘 치유된다.

2) 중이염

오래된 중이염은 잘 낫지 않는다. 치료를 받으면 낫다가도 몸이 피곤하거나 감기가 들면 다시 재발되는 수가 많다. 재발 잘 되는 중이염에 대한 치료방법이나 나환자들이 사용하는 치료약 디디에스(DDS)가 있다. 이것 한 알을 가루내어 거기에다 프로폴리스액을 짙은 솜에 가구를 묻혀서 귀 안에 넣는다. 고름이 많을 때는 닦아낸 뒤에 넣는다. 이것을 30일 이상 사용하면 만성중이염도 대개는 낫는다.

3) 치근염이나 풍치

무슨 병이든 뼈 부위에 생긴 병은 잘 낫지 않는다. 그 이유로 모든 작용은 혈액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뼈에는 혈액이 잘 통하지 않으므로 약효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프로폴리스는 뛰어난 효과를 가져다 준다. 프로폴리스를 면봉에 찍어서 바르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필자의 경험으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소금+프로폴리스로 만든 소금프로폴리스치약이다.

소금(붉은 소금이면 더욱 좋음) 150g에 프로폴리스 15cc를 섞으면 소금이 연한 노란색이 된다. 색이 약하면 프로폴리스를 조금 더 넣으면 되고, 색이 진하면 소금을 더 넣으면 된다. 이렇게 만든 치약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1개월 정도 양치하면 대개는 낫는다. 잇몸이 안 좋은 10여 명에게 주었더니 7~8명이 더 달라는 부탁을 해 왔다. 필자 역시 잇몸이 약했는

데 프로폴리스 치약으로 쉽게 고쳤다. 소금 치약을 아는 분들에게 만들어 주었더니 죽염에다 섞으면 더 좋을 것인데 죽염에 만들어 달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 때 필자는 평소 갖고 있던 죽염에 대한 견해를 말해 준 바 있다. 대나무의 진액을 추출하였을 때 소염 및 혈액순환 작용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을 프로폴리스의 작용과 동일시 보면 된다. 대나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식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모든 식물은 거의가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을 추출할 때는 약한 불에 오래 두면 약간의 액을 얻을 수 있다.

얻는 방법으로는 깨끗한 드럼통에 대나무를 맞게 자른 뒤 세워서 채운다. 위에도 밀봉을 한다. 드럼통 옆과 위에는 약한 열이 가해지면 대나무의 진액이 나와 모인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양은 노력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양이다.

대나무에 소금을 넣어서 높은 온도로 열을 가했을 때 대나무가 타면서 진액이 기화되면 대나무의 진액이 소금에 함유될 수 없다. 그것도 그렇게 해서 9번 구워야 진짜 죽염이 된다고 하는 데는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만들었으므로 고가로 판매해야 된다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소금에 열을 가해서 비소가 들어있는 간수만 제거시키면 일반 소금보다 유익한 소금이 될 수 있다. 그 소금을 섭취하였을 때 여러 가지 호전 반응은 올 수 있다.

현재 발병되고 있는 암, 당뇨, 고혈압, 신경통, 관절염, 빈혈 두통 모든 병들은 거의가 미네랄의 부족에서 오고 있다. 우리가 구입한 미네랄 약제는 다량으로 필요로 하는 미네랄 몇 가지가 함유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소금에는 97가지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서 극소량의 부족으로 온 질병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대량으로 필요한 미네랄 가운데도 칼슘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충족된다.

바닷물은 pH 8.2~8.5이므로 강한 알칼리성을 갖고 있다. 소금 역시 강한 알칼리성이므로 장기 복용하면 산성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꿀 수 있다. 체



질이 바뀐다는 것은 피가 맑아진다는 것이다. 해독이 적다해서 소금을 대량으로 복용할 때는 득보다 도리어 해가 더 많을 수 있다.

소금을 철판 위에 놓고 약한 불에 저으면서 볶아보면 냄새가 지독하게 난다. 냄새가 없어지면 1차 식품의 소금이 된다. 이것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볶으면 뻘지 구태여 9번을 볶아야 한다는 것은 한약에 말하는 9번 법제와 일치시키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소금을 대나무 속에 넣고, 황토를 발라 9번 구운 것이 진자 죽염이다.”라고 한다. 그것을 주장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가 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보면 철판에 볶은 소금이나 대나무 속에 넣고, 열을 가한 소금이나 동일한 효과라고 본다.

소금을 위장에 효과있게 만들려고 하면 천일염 9, 백반(한약, 건재방에 가면 구할 수 있음) 1의 비율로 섞어서 그것을 볶은 후 1회에 1g씩 하루 3회 복용하면 위염이나 궤양에 좋을 뿐 아니라 간장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돈 들지 않고 효과 있는 제품을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다.

6. 식중독에는 프로폴리스, 과식에는 식초

식물성이나 동물성 식중독에는 프로폴리스가 좋다는 것을 전장에서 서술한 바 있다. 복통이나 설사, 음식물을 먹은 뒤 이상하다고 생각될 때 물 100cc에 프로폴리스 5~10방울 떨어뜨려 먹으면 가벼운 식중독은 1~2회로써 낫는다. 식중독에는 프로폴리스가 좋고, 과식에는 식초가 더 낫다.

과식 중에는 육식 과식이 나쁘고, 그 중에도 열을 가한 육고기가 덜 좋다. 회를 먹을 때는 다소 과식을 해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입안이 산뜻하고 위의 포복감을 못 느껴도 열을 가한 육식을 했을 때는 입안이 텁텁하고, 소화가 덜 되고, 몸까지 무거움을 느낀다. 회에서 못 느끼는 것은 고기의 효소가 살아 있고, 거기에 식초가 들어가서 연소작용을 도와 주기 때문에 소화가 촉진되므로, 체내 독소를 덜 만들기 때문이다. 이것을 생선회에서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모든 음식물의 과식 때도 식초를 마시면 속이 편안할 뿐 아니라 입안도 상쾌해 진다.

식초는 합성식초가 아닌 양조식초를 사용해야 한다. 양조식초와 합성식초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식초 병을 들고, 흔들어서 식초에 거품이 생기지 않으면, 빙초산을 타서 만든 합성식초이고, 거품

이 생기는 것은 발효시킨 양조식초이다. 양조식초의 산도는 4~5도이지만, 합성식초는 7~8도가 된다. 양조식초는 1회 10~15cc 여기에 물을 3~4배 가산 시키면 되지만, 합성식초는 양조식초에 비하여 양은 적게하고 물은 5배 이상 타서 마셔야 한다.

특히 주의할 것은 식초는 산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위액이 많은 위산과다증에는 덜 좋다. 복용할 때는 식전이 아닌 식후에 반드시 복용해야 한다.

13. 자연과 건강

1. 인간은 소우주

인간을 소우주로 표현하고 있다. 지구에는 5대양 6대주가 있듯이 우리 몸에도 5장 6부가 있다. 지구의 3분의 2가 물이다. 우리 몸도 3분의 2가 물이다.

필자는 백과사전을 뒤지면서 빙하에 관해서 우연히 읽은 가운데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14%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읽을 때 몸에서 오는 찌릿한 감전을 느꼈다. 인체 생리학에서 읽은 우리 몸의 지방이 14%라는 사실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이 얼음이 물이 된다고 하면 물에 잠긴 국가들이 많고, 물이 지구의 5분의 4를 차지하게 된다.

얼음이 고체로 되어 있지만, 열이 가해지면 액체가 된다. 우리 몸의 지방도 체내에 있을 때는 기름 덩어리 고체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뜨거운 열을 가하면 포화 지방산은 모두 액체가 된다. 이것이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이다. 지구 속에 있는 얼음의 비율도 14%이다. 얼음이 물이 되었을 때 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구의 80%를 차지한다. 우리 몸의 지방 덩어리가 액체가 되어 물과 합치면 액체의 비율도 80%가 된다. 인간의 수명은 짧지만, 우주와도 같은 존귀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인간의 존귀함을 이렇게 표현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태 16:26)” 하나 밖에 없는 지구도 소중하지만 하나 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 귀한 몸이 병에 시달리면, 고생한다는 것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본 뜻과도 어긋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에서 찾을 수 있는 물질을 갖고도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이 정답이다. 그것은 산이나 바다는 말할 것도 없고, 동물이나 곤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

- 다음호에 계속 -